aT, 할랄한우 수출 영토 넓힌다… 중동 바이어 5개社 초청

UAE·카타르 수입·유통 바이어에
한우 생산·도축·가공 현장 소개
25건 수출상담, 5개社 업무협약
인니 자카르타서도 홍보관 운영


지난 10월 26~30일 동안 국내 할랄한우 가공시설을 찾은 중동지역 수입업체 관계자들.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할랄 K-푸드를 소개한 '2026 K-브랜드 해외농식품 홍보관' 모습. /aT

당국이 할랄한우 수출 계약의 본격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중동 지역의 수입·유통업체 5곳을 국내에 초청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K-푸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할랄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aT는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의 육류 수입·유통 바이어 5개사를 초청해 강원 횡성과 전남 해남 소재 한우 생산·도축·가공 현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닷새간 수출상담 25건이 진행됐고, 그 결과 업무협약(MOU) 5건이 체결됐다.

지난 10월 26~30일 진행된 초청 행사에서 중동 업체들은 국내 한우 생산자단체 및 축협을 방문해 생산·유통 현황과 등급제도, 이력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횡성의 한우사육농가와 할랄 도축·가공시설을 찾아 사육환경부터 도축, 정형, 보관까지 수출 전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다. 또 한우 부위별 품평과 현지 메뉴 활용 시연을 통해 상품성을 평가하고, 국내 수출업체와 수출가격, 최소 주문수량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까지 협의했다. 해남에서도 한우 생산농가 및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프리미엄 한우의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수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해당 바이어 5개사는 UAE와 카타르에서 케이터링 식재료 유통, 온라인 판매, 소매유통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연간 육류 수입 규모가 도합 1만3000톤(t)에 달한다. 오만에 본사를 둔 MLS라는 업체는 오만은 물론 UAE에서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의 더푸드컴퍼니는 UAE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중동 역내 유통망을 활용한 한우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aT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총 25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국내 축협 4개사와 전남광주 소재 한우 농장 1개사 등 총 5개사가 업무협약(MOU)을 맺는 성과를 냈다. 특히 초청 바이어 5곳 중 4곳이 샘플 공급을 요청했고 꽃등심과 안심, 채끝 등 고급 부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할랄 한우는 2023년 말레이시아에 이어 2025년 10월 UAE로 처음 수출되며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UAE에 지금까지 총 40만 달러 상당의 한우가 수출됐다. 올해 9월에는 농식품부가 카타르 정부와 뼈 없는 냉장·냉동 쇠고기의 수출위생조건 협의를 마치면서 수출가능 대상지가 3개국으로 늘었다.

aT는 해외 수요조사부터 국내 할랄도축장 인증 지원, 수출협력체계 구축까지 한우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를 통해 두바이에서 한우 시식·홍보 행사를 개최해, 현지 셰프와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국산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알렸다.

이번 상담과 업무협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샘플 공급 ▲초도 수출 물류 ▲현지 판촉 등 후속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아직 한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재외공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검역 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바이어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해 향후 시장 개방에 대비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UAE와 카타르를 넘어 오만 등 중동 주요국에 유통망을 갖춘 바이어들과 수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aT는 지난 8~10월 3개월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2026 K-브랜드 해외농식품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홍보관은 '8월 트렌디, 9월 프리미엄, 10월 할랄'을 월별 테마로, 매달 다양한 한국산 농식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지난달 24일에는 K-팝 아이돌 저스트비의 공연과 함께, 2026년 K-푸드 서포터즈 1기 30인의 해단식 및 우수 서포터즈 5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인니 당국은 당초 2026년 10월18일부로 시행 예정이던 할랄인증 의무화 제도 관련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2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인증의무화 시행도 2028년 10월18일로 미뤄졌다.

aT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무슬림 인구가 2억5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할랄시장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10억톤 '숨은 물그릇'으로 호우 피해 최소화

기후부, 기존 저수지·발전댐 등
홍수 조절용으로 적극 활용
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로 예방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시내의 한 학교 운동장이 빗물에 잠겨 흙탕물로 변해 있다. /뉴시스

올여름 기록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와 국지적 가뭄이 교차하는 극한 기후 속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숨은 물그릇 확보와 첨단 예보 고도화 덕분에 인명·재산 피해를 대폭 줄였다고 3일 밝혔다.

올여름은 지역별 강수 양상의 편차가 극심했다. 전국 여름철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의 76.1% 수준에 그쳤고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의 60.3%에 머물렀다. 반면 경남 거제시에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968.1㎜의 물폭탄이 쏟아져 1시간 최다 강수량 124.5㎜로 기존 극값(104.0㎜)을 갈아치웠다.

비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면서 가뭄도 함께 찾아왔다. 9월 26일 기준 섬진강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31.9%, 운문댐은 38.7%에 불과했다.

이 같은 복합 위기 속에서 기후부는 관계기관과 손잡고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을 홍수 조절용으로 적극 활용해 총 10억 4000만t의 '숨은 물그릇'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체계로 지류·지천까지 촘촘히 살피고,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등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을 도입해 예방 체계를 다졌다. 홍수취약지구 역시 지난해 799곳에서 올해 893곳으로 늘려 집중 점검했다.

기상청은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슈퍼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이번 달에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가뭄이 함께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동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댐, 저수지, 하굿둑 등 수자원 시설을 보다 면밀히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긴밀히 구축·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남부발전과 탄소중립 등 '맞손'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남부발전 간 재생에너지 개발 협약식. /BPA

부산항만공사(BPA)가 3일 한국남부발전과 BPA 본사에서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탄소중립 항만 구축'과 '지속가능한 항만형 RE100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 인프라를 활용한 육상풍력 공동개발을 통해, 부산항의 탄소중립 실현과 항만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추후 풍력발전 설비 도입을 위한 항만부지 제공, 항만 내 전력망 연결 등을 추진한다. 남부발전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맡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육상풍력 공동개발뿐 아니라 향후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홍보

'한마당 축제' 찾아 가입·혜택 안내

근로복지공단이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홍보에 나섰다. 이들 전용의 고용·산재보험 상품이 있음에도, 혜택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 비중은 20% 안팎에 그쳤다.

공단은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방법 및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 이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 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와 성우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중 78.6%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

이에 공단은 참여자들이 제도를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시의무 계속 위반하면 최대 50% 가중"

공정위, 오는 9일부터 시행
최초 위반 때 감경 규정도 삭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최근 5년간 4회 이상 위반 시에만 10~20%가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로 가중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 건은 제외하도록 산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또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감경 기준들이 삭제됐다.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까지 깎아주던 감경 규정은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가산되는 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아울러 최초 위반 시 20%를 깎아주던 규정 역시 신규 지정 직후 위반 감경(50%)과 중첩 적용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삭제됐다. /세종=한용수 기자